

-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추진실태에 대한 -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1. 조사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5조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천현·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이 운영되도록 함은 물론, 향후 사업 승인 시 의정에 반영 하고자 함.

2. 조사기간

- 2017년 8월 8일 ~ 8월 11일(4일간)

3. 조사대상 기관 및 조사의 범위

- 대상기관 : 하남도시공사, 하남시
- 조사범위 :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전반

4. 조사장소

- 하남시의회 소회의실

5. 조사특별위원회 편성

구 분	위 원	비 고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승용 의원	총 6인 (가나다 순)
조사특별위원회 간 사	이영준 의원	
조사특별위원회 위 원	강성삼 의원 문외숙 의원 박진희 의원 방미숙 의원	

【사무보조자】

직 위	직 급	성 명
사 무 과 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명 훈
수 석 전 문 위 원	지방행정사무관	이 정 훈
전 문 위 원	지 방 행 정 주 사	최 현 주
의 사 팀 장	지 방 행 정 주 사	강 미 정
직 원	지방행정주사보	신 국 철

6. 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 내용

가. 조사활동 일정(회의일정)

일 시	내 용	비 고
2017.08.08	○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추진실태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	본회의
2017.08.08	○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위원장 : 김승용의원, 간사 : 이영준의원)	특 위 (제1차)
2017.08.08	○ 조사계획서 작성 (조사대상기관 선정)	
2017.08.08	○ 조사계획서 특별위원회 의결 (자료요구 목록 및 출석대상자 포함)	
2017.08.08	○ 조사계획서(안) 본회의 의결	본회의
2017.08.09	○ 조사활동 실시 - 관계공무원 및 도시공사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추진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	특 위 (제2차)
2017.08.10	○ 조사활동 실시 - 관계공무원 및 도시공사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추진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의결	특 위 (제3차)
2017.08.11	○ 결과보고서 채택	본회의

나. 관계공무원(증인) 및 참고인 현황

(장소 : 소회의실)

출석 요구일자	성 명	직 위	사 유	비고
2017.08.09 (10:00)	오수봉	하 남 시 장	H1 프로젝트 추진 관련 사실확인	참석
"	김양호	부 시 장	"	참석
"	안지근	행복도시사업단장	"	참석
"	이광범	기 획 예 산 담 당 관	"	참석
"	김재의	공 보 감 사 담 당 관	"	참석
"	김현신	조 사 팀 장	"	참석
"	김영길	도 시 개 발 과 장	"	참석
"	김재남	하남도시공사 사장	"	참석
"	유홍종	하남도시공사 본부장	"	참석
"	강규성	하남도시공사 기획예산팀장	"	참석
"	안진기	하남도시공사 기획예산팀과장	"	참석
"	박용성	하남도시공사 기획예산팀대리	"	참석
"	김효정	하남도시공사 기획예산팀대리	"	참석
"	윤성춘	하남도시공사 경영지원 팀장	"	참석
"	우광명	하남도시공사 경영지원팀 대리	"	참석
"	박재률	한 국 투 자 증 권(주) 컨 서 시 업 이 사	H1 프로젝트 우선 협상대상자 공모에 따른 사업자 선정 과정 등 전반	불참
"	김덕일	대우태영컨서시엄(주) 대표이사	"	불참

7. 조사결과

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진행과정상의 문제점

- 천현·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추진 계획에 따라 2017년 2월 14일부터 2017년 5월 15일까지 공모지침서를 작성하여 민간사업자 공모(우선협상대상자 공모) 공고를 하였음.
- 첫 째, 하남도시공사에서 작성하여 공모 시 공고를 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제8조 사업신청자격 및 방법 ⑥항에 “대표사는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A- 등급 이상인 업체이어야 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대우태영컨서시엄과 한국투자증권(주)컨서시엄 2개 컨서시엄이 2017년 5월 15일 공모 신청을 한 바 신청서류 중 대우태영컨서시엄의 미래에셋대우(주)의 신용평가서는 재무제표기준일이 2016년 12월 31일, 등급평정일이 2017년 5월 12일(교부일 : 2017년 5월 12일)의 기업신용평가서(등급 AA)를 제출하였고, 한국투자증권(주)컨서시엄에서는 한국투자증권(주)의 신용평가서가 재무제표기준일이 2015년 12월 31일, 등급평정일이 2016년 4월 22일(교부일 : 2017년 5월 10일)인 회사채신용평가서(등급 AA)를 제출하였음.
 - 2017년 7월 19일 7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평가 심의 결과 대우태영컨서시엄【미래에셋대우(주)】으로 선정되어 2017년 7월 21일 선정 공고를 하였음.
 - 이에 한국투자증권(주)컨서시엄에서 2017년 7월 13일 하남시장, 하남도시공사 사장에게 미래에셋대우(주)는 공모지침서 제8조 제6항의 사업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를 주장한 “친환경 복합 단지 H1 프로젝트 관련 검토의견을 제출” 하였으나 공모지침서의

명시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판단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었고, 2017년 8월 1일 한국투자증권(주) 측에 미래에셋대우(주)에서 제출한 서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회신하여 업체선정 과정에서 의혹을 낳게 하였음

- 둘째, 공모신청서 접수 시 서류를 박스에 넣고 테이프로 봉한 후 서명한 제출서류를 7월19일 심사위원회 개최 전인 6월8일에 정량평가를 위해 참가업체의 동의 없이 개봉하여 봉인 해제함으로 인해 정보유출 등의 의혹이 제기되었음

나.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시 확인된 사항

- 첫째,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정에 있어 공모에 응한 한국투자증권(주) 측에서 7월19일 평가심의회 개최 전 7월 13일에 이의신청한 건에 대해 회신 없이 평가심의회를 개최하고 대우태영(주) 컨소시엄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문제점이 있음
- 또한 공모지침서에 있는 명시적 규정인 제8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대우(주)가 최근에 합병한 사실을 근거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을 유권해석 없이 적용하여 사업신청에 적합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 한 바 있음
- 둘째, 서류 신청 접수 시 제안서의 외부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박스에 테이프로 봉합하는 과정에서 업체 측에서 일방적으로 사인하여 봉인하게 되었으며, 차후 접수하는 업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 되었으나, 추후 심사위원회 개최 전 공사의 절대평가 등을 위하여 개봉 할 예정임을 설명하였음.
- 7월19일 평가심의회 개최 당일 날 한국투자증권(주) 측에서 이의

제기한 바 있어, 5월 15일 신청서 접수 시 고지했던 봉인해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주지 시켰으며, 이 때 더 이상 이의제기는 없었다고는 하나 공모신청서 접수 및 절차진행 등에 있어 업무 미숙과 관련규정의 연찬 부족으로 인한 사전정보 유출 등의 의혹을 받게 되었음.

- 셋째, 사업계획서 평가 시 평가항목 중 가산점 부여에 있어 한 개 업체에는 만점인 10점을 주고 다른 업체에는 0점을 주게 하는 등 가산점 격차를 크게 하여 가산점 항목으로 당락을 결정하게 하는 등 공모지침서의 작성 및 공모절차 진행이 미숙하여 공정하지 못한 심사라는 의혹을 낳게 하였음

8.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

- 천현·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2017년 8월 8일부터 2017년 8월 11일까지 하남시청 관계공무원, 하남도시공사 관계자 등을 출석토록 하여 증언을 통한 사실 확인과 하남도시공사에서 제출받은 관련자료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조사하였음.
- 첫째, 공모 주체인 하남도시공사의 자료제출의 지체 등 조사태도가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심도 있는 조사가 지난하여 실체를 파악하는데 충분한 접근이 부족하였고,
- 둘째, 공모과정에서 하남도시공사에서 자체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작성하여 기준을 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격판단 기준을 지침서가 아닌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는 등 발주처의 의지를 중요시하여 공모 업체 자격을 자의적 해석하여 특혜의혹을 불러 일으켰으며,

- 세째로 사업비 약 1조 3천억원의 대형 사업에 있어서 법 규정상 봉인이라는 절차는 없어도 아무런 의식 없이 테이프 등으로 묶어 놓고 절대평가를 위해 임의로 개봉하였으며, 제본된 신청서가 아닌 낱장의 신청서를 접수 하여 위·변조의 우려 등 직원들의 안일한 관리업무상 문제가 제기되었음.
- 네째, 하남도시공사에서 절대평가를 위한 직원을 임의적으로 선정 하여 사전 평가한 것은 행정상 절차위반으로 판단되며, 평가 항목별 배점에 있어 가산점 항목의 배점을 25점으로 지나치게 비중을 크게 하여 직원이 평가한 절대평가와 심사위원이 평가한 상대평가의 결과 보다 가산점 평가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바, 가산점의 배점을 줄이거나 부여기준의 점수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음
- 다섯째, 현재 “천현·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개발 사업을 원칙적으로 백지화를 요구하는 주민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바, 하남시 및 하남도시공사와 주민들 간의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것을 촉구함.

9. 종합의견

- 첫째, 하남도시공사에서는 시의회에서 각종 자료 요구 시 성실하게 요구에 응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 둘째, 하남도시공사 직원들의 직무교육 등을 통해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할 필요성이 제기됨.
- 세째, 공모를 신청한 업체에서 받은 신청자격에 대한 법률자문이 서로 대조적으로 상이하고 탈락한 업체의 입장과 하남도시공사의 입장이 서로 상반되고 있어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 및 의혹을 해소 한다는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청구 등 유권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음.

- 네째, 평가 과정에 있어 가산점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등 평가기준의 면밀한 검토 없이 평가된 바, 결재권자의 책임의식과 직원교육 등이 필요함.
- 다섯째, 하남도시공사를 감독하는 하남시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함.

이러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하남시 및 하남도시공사에 결과를 하남시의회에 제출요구를 하며, 유권해석을 위한 감사원 감사를 의뢰.